

LAMBETH  
CONFERENCE  
하느님의 세계를 위한 하느님의 교회



# LAMBETH CALLS



## 들어가기에 앞서

2022년 Lambeth Conference는 ‘하느님의 세계를 위한 하느님의 교회 – 함께 걷고, 들으며, 전도하다’라는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주교들은 교회와 국제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다룬, 열 개의 Lambeth Calls(청원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Lambeth Calls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자도
-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 성공회 정체성
- 안전한 교회
- 과학과 신앙
- 인간 존엄성
- 하나 된 기독교
- 전도와 복음주의
- 종교 간 관계
- 화해

Lambeth Calls은 다음 구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청원문의 주제에 관해 기독교 교회가 일반적으로 가르쳐온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선언.
- 현 시대의 문제에 대해 주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한 확인.
- 주교들이 서로에게,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주고자 하는 미래의 증거, 나눔 활동 또는 도전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 사항(The Calls).

Lambeth Calls는 2022년 7월~8월 컨퍼런스 중 주교들에게 발표되었습니다. 각 Lambeth Call은 세계성공회 전반의 주교, 성직자, 평신도들로 구성되고 의장주교 또는 수석 주교가 이끄는 초안 작성 그룹이 작성하였습니다.

초안 작성 그룹은 2022년 Lambeth Conference에서 주교들에게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기존의 문서를 업데이트 한 후, 2023년에 본 버전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Calls의 순서는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순서와는 다른데, 이는 교회의 절기와 주요 국제 행사와 더 밀접하게 연계하기 위함입니다.

업데이트된 선언문들과 함께 이제 우리는 Lambeth Conference 여정 중 세 번째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Lambeth Conference가 ‘일치의 도구’라면 Lambeth Calls는 세계성공회 공동체에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와 공동체가 청원문에 담긴 내용을 탐색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에서 [Lambeth Calls 및 Lambeth Conference 여정의 3단계와 Lambeth Conference의 역사 및 목적](#)에 대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각 부름의 목적은 하느님을 더 굳게 믿고, 세계성공회의 사목을 발전시키며, 전 세계 교회와 공동체의 부름에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목차

제자도에 대한 LAMBETH CALL	4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LAMBETH CALL	7
성공회 정체성에 대한 LAMBETH CALL	13
안전한 교회에 대한 LAMBETH CALL	17
과학과 신앙에 대한 LAMBETH CALL	20
인간 존엄성에 대한 LAMBETH CALL	23
하나 된 기독교에 대한 LAMBETH CALL	28
전도와 복음주의에 대한 LAMBETH CALL	31
종교 간 관계에 대한 LAMBETH CALL	33
화해에 대한 LAMBETH CALL	36



# LAMBETH CALL

## 제자도

### 1 들어가기에 앞서

- 1.1 제자는 마음과 몸과 영으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Lambeth Conference에 모인 주교들은 모든 성공회 신자들에게 삶의 모든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고 해방하고 생명을 주시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며 따르도록 요청하였으며, 이 내용을 본 청원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첫째 편지는 하느님의 백성을 이러한 훈련되고 전인적인 제자도로 부르시기에, 주교들은 본 청원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총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잘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느님께 복종하십시오. 또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위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서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첫째 편지 1:13-16)*

- 1.2 신도들은 사회의 압박을 받고, 모든 이는 영적 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첫째 편지는 우리가 하느님의 도움에 의지할 수 있고, 또 의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설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받은 사람답게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무슨 일든지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영광과 권세를 누리실 분이십니다. 아멘. (베드로의 첫째 편지 4:11)*

그러므로 이 부름을 받은 모든 성공회 신자들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인 ‘하느님께서로부터 받은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배우고 익히며 따라야 합니다.

### 2 선언

- 2.1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세계 성공회의 규모와 범위는 전 세계의 성공회 신도들이 역사를 통틀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해왔음을 보여줍니다.

- 2.2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독교인의 헌신이 ‘범위는 넓지만 깊이는 얕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곳에서 기독교인의 헌신은 명목에 불과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루사카에서 열린 세계성공회협의회(ACC) 총회에서 의도적인 제자도 및 제자 삼기의 계절(예수님 닮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과 제자 양성의 신학적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세계 성공회의 모든 관구, 교구, 전도구가 의도적인 제자도에 확실한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 준비하며, 교회 전체가 효과적일 수 있도록 자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ACC-16 결의 16.01)<sup>i</sup>.*

- 2.3 이는 2019년 홍콩에서 열린 제 17차 ACC 총회(ACC-17)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제자도의 계절은 2026년 ACC-19까지 지속됩니다. 지금까지 세계성공회의 100개가 훨씬 넘는 교구와 42개 관구 중 많은 곳에서 공식적으로 의도적인 제자도를 주요 우선순위로 채택하거나 이 주제에 대한 협의 및 워크숍을 주최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중심은 바로 소그룹입니다. 세계성공회는 이 계절과 예수님 닮은 삶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개발했습니다([www.anglicancommunion.org/mission/intentional-discipleship.aspx](http://www.anglicancommunion.org/mission/intentional-discipleship.aspx)).



- 2.4 전 세계의 다른 많은 교회들도 제자도를 심화해야 할 필요성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에서 발표한 2018년 제자도를 위한 아루샤 부름(Arusha Call to Discipleship of 2018)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과 거부, 외로움과 무가치함에 직면하는 세상에서, 세례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의 방식인, 변화를 만드는 제자도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sup>ii</sup>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한 하느님의 온 백성에게 선교하는 제자가 될 것을 촉구했으며, 이 부름을 그의 사역의 중심에 두었습니다.<sup>iii</sup>
- 2.5 성공회 신자들이 의도적 제자도의 계절에 접어들면서, 많은 이들은 다섯 가지 주요 사명(Five Marks of Mission)이 그리스도의 길을 배우고 따를 수 있는, 영감적이고 통합적인 이정표를 제공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시될 청원문들은 성공회 신자들이 이를 따라 더욱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고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 3 확인

우리는 Lambeth Conference에 모인 주교로서, 이 의도적인 제자도의 계절에, 하느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기도와 말씀과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해방과 생명을 주시는 방법을 배우고 또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우리 교구의 신자들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 4 구체적 요청(청원)

- 4.1 우리는 모든 성공회 신자들에게, 이 의도적인 제자도의 계절에, 우리 삶의 모든 측면과 일상 생활에서, 기도와 말씀과 성사를 통해, 그리고 소그룹에서, 하느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해방과 생명을 주시는 방법을 배우고 또 배워, 우리의 그리스도 따름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에 걸쳐 우리의 소명을 자각하고 또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성공회 신자들에게 세계 성공회 공동체 삶의 규칙으로써 다섯 가지 주요 사명을 연마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 가지 주요 사명은 규칙적이고, 사려 깊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통해 익혀야 하는 습관입니다.
- 전합니다 -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 가르칩니다 - 새로운 신자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며 양육합니다.
  - 보살핍니다 - 치유 사역을 포함한 사랑의 봉사로 인간의 필요에 응답합니다.
  - 변혁합니다 - 사회의 부당한 구조를 변혁하고 모든 종류의 폭력에 도전하며 평화와 화해를 추구합니다.
  - 소중히 여깁니다 - 창조의 온전함을 지키고 지구의 생명을 지탱하며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4.2 평신도와 성직자를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전례가 의도적으로 마음과 몸과 영이 형성되고 변화되어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새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에서 회중의 지원을 확신하는 세례식의 언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 4.3 교구들에 요청합니다. 전도구들을 도와 제자도 양성을 위한 소그룹을 세우고 확장하도록 하고, 직장, 학교, 지역사회 등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일상에서 제자도에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을 제공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어린 아이들의 신앙 개발을 위한 자원도 필요합니다.
- 4.4 우리 교회들에 요청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학교, 회중 및 지역 사회에서 젊은이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제자도의 선배들로부터, 그리고 여성들과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로 부터 배우도록 하여, 이 배움과 변화가 교회 전체에 걸쳐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분을 따르는 가운데 은사를 사용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4.5 신학교, 신학대학,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에 요청합니다. 제자도와 제자 양성이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고, 학습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자도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모든 성직자 및 평신도 사목자들이 설교를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십시오.



4.6 우리는 세계성공회 사무총장이 복음주의 및 제자도 위원회(Commission for Evangelism and Discipleship)의 도움을 받아, 세계성공회 전반에 의도적인 제자도의 계절을 홍보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분야의 진전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관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도적 제자도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음 ACC 및 차기 Lambeth Conference에 다시 보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 5 이행

이 부름을 받고 실행하려면 관구들과 교구들은 각 상황과 환경에 적합한 소그룹 양성의 형태, 교회 개척의 잠재 가능성, 대학, 신학교, 프로그램 등이 졸업생에게 주입해야 할 역량 등에 대해 더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인용 자료

- i. ACC-16 결의 16.01
- ii. R. Jukko and J. Keum, *Moving in the Spirit*, Geneva: WCC 2019
- iii. *Evangelii Gaudium*(복음의 기쁨), 2017



# LAMBETH CALL

##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 A. 환경

#### 1 들어가기에 앞서

- 1.1 우리는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답고, 놀라울 정도로 풍요로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계를 선물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좋다고 선포하시고 사랑하시는 세계입니다.
- 1.2 그 세계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환경 오염은 사람과 지구 모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와 더불어, 때로는 이러한 문제가 야기하는 빈곤, 불평등, 불의, 갈등은 수백만 명의 삶에 피해를 입힙니다.
- 1.3 그러나 이곳은 여전히 하느님의 세상이며, 하느님은 우리를 부활절의 백성, 곧 희망을 품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 1.4 Lambeth Conference에서는 베드로의 첫째 편지를 탐구했습니다. 이 성구에서 우리는 ‘충심으로 열렬히 서로 사랑’하고(베드로의 첫째 편지 1:22), 서로 극진히 대접하고, 청지기로서 은총을 잘 관리하며, 서로 봉사(diaconia)하도록(베드로의 첫째 편지 4:9-10) 부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우리의 공동의 고향인 지구를 돌보는 데 필수적입니다.
- 1.5 하느님은 이 세상(cosmos)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요한의 복음서 3:16). 지상에서 예수께서는 자연계에서 평화와 위안을 찾으셨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영감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조물 전체에 화해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본질을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써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편지 1:19)
- 1.6 환경 문제들은 매우 큰 난제이지만, 기독교의 이야기는 구속, 부활, 변화,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피조물과 화해의 길을 따르라고 부르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받았습니다.

#### 2 선언

- 2.1 성공회 신도는 다섯 가지 주요 사명에 반영된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을 고수합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의도적인 제자도(intentional discipleship)와 하느님의 세계를 위한 하느님의 교회(God’s Church for God’s World)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총체적 틀을 제공합니다.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인간과 지구, 정의, 평화,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표현하고, 피조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도록(창세기 2:15), 그리고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고 새롭게 하도록(다섯 번째 핵심 사명) 우리를 부르십니다.
- 2.2 그러므로 성공회 신도들은 인간의 안녕과 창조의 돌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뿐만 아니라,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이자 “정의가 깃든 새 하늘과 새 땅(베드로의 둘째 편지 3:13)”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으로 바라봅니다.
- 2.3. 피조물의 온전함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사명을 성공회인으로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지배주의 신학은 착취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고, 현재의 환경 위기에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해로운 신학을 통해 가해진 죄 많은 피해를 회개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 2.4 세계성공회 공동체는 2008년 Lambeth Conference가 남긴 유산을 바탕으로 합니다. 2008년 Lambeth Conference는 UN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성공회 개발구제 연합을 탄생시켰습니다. 성공회 개발 구제 연합은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https://sdgs.un.org/goals>]에 비추어 이러한 약속을 재확인한 ACC-17를 기반으로 발족하였습니다.
- 2.5 세계성공회의 관구들은 지역, 국가, 세계의 사회적, 환경적 도전과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교회가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상상하며,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 2.6 하지만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이라는 삼중 환경위기는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동식물종 존재를 위협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를 “인류에 대한 코드 레드”라고 일컬으며 “지금 아니면 지구 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할 기회가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sup>i</sup>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순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 동안 극단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2.7 세계성공회는 국경을 초월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글로벌하고 상호 연결된 단체로서 남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성공회 소속 교회는 환경 비상사태의 전 영역에 걸쳐 참여합니다. 우리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체에서 환경이 파괴되는 모습을 직면합니다. 우리는 모두 오염을 유발하는 자들입니다. 특히 부유한 국가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땅, 집, 생계의 손실과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 자본을 가진 투자자입니다. 우리는 재난에 긴급하게 대응하며 회복과 복원의 여정에서 지역사회와 동행합니다.
- 2.8 우리는 문제에 원인을 제공하면서도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는 국지적이면서도 세계적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의 네트워크와 성공회 정체성을 활용하여 행동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입장이 아닌 여러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창조의 그물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곧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편지 1:16). 우리는 이제 모든 인류와 피조물을 위해, 공동의 고향인 지구를 위해 함께 행동하도록 부름을 받았습시다.
- 2.9 차기 Lambeth Conference가 열릴 때쯤이면 기후 변화의 전환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가뭄과 해수면 상승 및 기타 영향으로 인해 성공회가 존재하는 지역 중에 인간이 살기 어려운 곳이 많아질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끔찍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5만 개 이상의 새로운 화석 연료 개발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sup>ii</sup> 우리의 바다와 강은 플라스틱으로 꽉 막혀 있고 사람들은 오염된 공기로 인해 질식하여 죽어갑니다. 삼림 벌채, 남획, 지속 불가능한 농업 관행 등에 의한 생물다양성의 손실로 인해 생명의 거미줄이 크게 손상되어 창조의 완전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2.10 지금까지 전 세계적 대응은 전적으로 불충분했습니다. 대응에 사용되는 자원이 부족할뿐더러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킬만한 힘을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확인

- 3.1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긴급하게, 대규모로 행동해야 합니다.
- 3.2 하지만 행동이 원활히 지속되려면 변화된 마음과 마음가짐에서 행동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조치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기후 비상사태는 물리적 위기일 뿐만 아니라, 탐욕, 무관심, 이기심으로 악화되는 영적 위기이기도 합니다.
- 3.3 인류는 영적, 문화적 변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과 온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착취적인 세계관을 반성하고 거부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인 관계적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특히 모든 피조물의 깊은 상호의존성을 이해하는 원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4 구체적 요청(청원)

- 4.1 우리는 주교로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관구, 교구, 전도구의 신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 4.1.1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느님의 경이로운 창조를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지상의 모든 생명의 깊은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지구에 큰 해를 입히고 사람들에게 부당함을 초래한 지배적인 행동과 신학을 반성하십시오.
  - 4.1.2 인식합니다: 삼중 환경 위기를 문화적, 영적 가치의 위기로 인식하십시오. 교회의 범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와 인류에게 도전하십시오. 자연을 착취하는 태도를 기독교 전통의 지혜와 원주민에 의해 구현된, 자연과 관계를 맺고 관리한다는 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 4.1.3 적용합니다: 다섯 가지 주요 사명을 다음과 같이 성공회 교회의 삶에 통합하십시오. 이 청원을 교구와 전도구 구조에 반영하고, 신도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창조 전례를 받아들이고, 창조의 계절 등에 기도와 탄식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기후 정의를 요구하는 젊은이들과 여성들의 예언적 목소리를 높이고,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교구들과 연대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하십시오.
  - 4.1.4 준비합니다: 지역사회가 재난을 견디고 복구할 수 있는 회복력을 기르도록 준비해주십시오. 기후 변화가 여성과 미래 세대에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청년들의 예언적 목소리와 지구의 보호자라는 여성의 주요 역할을 장려해야 합니다.
  - 4.1.5 참여합니다: 지구 곳곳의 숲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성공회 삼림(Communion Forest) 이니셔티브에 참여해 주십시오. 견진 성사를 받거나 삶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영적 성장의 상징으로서 나무를 기르는 것을 장려합니다.
  - 4.1.6 보증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산을 윤리적으로 사용하고 투자하여 지구와 인류에게 복음이 되게 할 것을 보증해주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새로운 화석 연료 탐사 작업에 투입된 자금을 철회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투자해야 합니다.
  - 4.1.7 인식합니다: 라이프스타일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여행, 소비 및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등 생활 방식을 변화하기로 결심합니다.
- 4.2 우리는 성공회 기구(Instruments of Communion)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 4.2.1 지원: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이라는 3대 환경위기에 시급히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교구들의 노력에 자원을 지원합니다.
  - 4.2.2 지지: 기후 변화는 정의에 관련된 문제로서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재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제 사회와 함께 지지해주십시오.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성공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예언적으로 행동해 주십시오.



4.3 우리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다음을 촉구합니다.

4.3.1 과감하고 긴급하게 정책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한 정책은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상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순 제로 탄소 배출을 달성해야 합니다.
-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를 보상하는 등 기후 금융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실질적 약속 범위를 늘려야 합니다.
- 새로운 가스 및 석유 탐사를 중단하는 동시에 청정 재생 에너지로의 정당한 전환에서 신흥경제국을 지원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 생물다양성을 보호 및 복원하고 오염 문제를 해결합니다.

4.3.2 요구합니다: 부유한 국가들과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기후 행동에 앞장서고 다른 국가들의 배출량 감소를 위해 자금을 공정하게 조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4.3.3 지원합니다: 청정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관행 및 식량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 및 야심찬 목표를 지원합니다.

4.3.4 인정합니다: 기후 비상 사태의 규모와 시급성에 비추어볼 때, 정치보다 과학에 기반한 행동이 우선해야 함을, 우리의 서로 및 자연 세계와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라는 도덕적 소명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4.3.5 인식합니다: 피조물의 가치와 돌봄에 대한 신앙 공동체 안의 지혜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신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세계의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인용 자료

- 2022년 IPCC 보고서: <https://unfccc.int/news/the-evidence-is-clear-the-time-for-action-is-now-we-can-halve-emissions-by-2030>
- <https://theconversation.com/how-treaties-protecting-fossil-fuel-investors-could-jeopardize-global-efforts-to-save-the-climate-and-cost-countries-billions-182135>



## B. 지속 가능한 개발

### 1 들어가기에 앞서

- 1.1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과 불평등으로 인해 삶을 영위하고 번영할 능력이 저하된 지역 사회와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불평등을 심화하고 최근 수십 년간의 개발 성과를 약화시켰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위기 동안 극심한 빈곤 수준이 높아져 현재 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1.90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1.2 성공회인을 포함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수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고질적인 문제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재난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재난은 종종 분쟁, 경제 위기, 가뭄, 해수면 상승, 홍수, 화재를 유발하는 기후 변화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생명을 앗아가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며 생계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식량난이 발생하고 교육이 중단되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강제 이주가 발생하고 사람들을 인신매매의 위험에 빠뜨리며 젠더 기반 폭력이 증가합니다. 지역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가족이 해체됩니다. 재난은 여성과 청년, 원주민에게 심히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위기는 재정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측면에서도 큰 비용을 야기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켰고,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빈곤과 불평등을 증가시켰습니다.
- 1.3 이 상황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돌보아야 하나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Lambeth Conference에서 연구한 베드로의 첫째 편지에 표현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충심으로 열렬히 서로 사랑’하고(베드로의 첫째 편지 1:22), 서로 극진히 대접하고, 청지기로서 은총을 잘 관리하며, 서로 봉사(diaconia)하도록(베드로의 첫째 편지 4:9-10) 부름 받았습시다. 이것은 우리가 지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서로를 돌보는 데 필수적입니다.
- 1.4 예수님은 정의를 추구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의 사역을 따르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루가의 복음서 4: 18-19)

### 2 선언

- 2.1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느님의 영원한 이야기에 참여하는 모험으로 부름을 받아, 세상이 원래 가질 수 있었던 모습, 가져야 하는 모습, 언젠가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가지게 될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함을 의미합니다.
- 2.2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사람과 지구가 평화와 번영 안에서, 하나의 인류로서 파트너가 되어 함께 번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전입니다. 인류는 정의와 연민을 추구하도록,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젠더 불평등을 포함한 불의에 직면한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더 정의로운 세상, 즉 모두가 번성할 기회를 갖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우리 모두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비전과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원칙은 성공회의 다섯 가지 주요 사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3 확인

- 3.1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는 행동의 계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다시 상상하고 이러한 불의와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기회입니다. 2030년은 SDGs의 중요한 목표 연도입니다. 성공회인으로서 교회의 사명, 즉 그리스도의 사명은 다섯 가지 주요 사명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주요 사명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하며,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충만함을 주려는 예수님의 사명을 상기시킵니다(루가의 복음서 4:18, 요한의 복음서 10:10, 마르코의 복음서 16:15).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자 소망입니다. SDGs는 이해를 넓히고 대응 및 조치 방안을 알리며 사람과 지구를 위한 더 넓은 범위에서의 세계적 운동의 일원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세계를 위한 하느님의 교회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 4 구체적 요청(청원)

- 4.1 우리는 주교로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관구, 교구, 전도구의 신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 4.1.1 하느님의 세계를 위한 하느님의 교회로서 봉사하면서 교회의 삶 속에서 다섯 가지 주요 사명을 더욱 온전히 추구해야 합니다.
- 4.1.2 어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우리의 사명과 가장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행동을 위한 교구 선교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 4.1.3 우리 교회가 지역적, 국제적 이웃과 함께 협력하여 변화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준비합니다. 다섯 가지 주요 사명에 반영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비전에 따라,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정의로운 공동체를 구축하도록 우리가 가진 은총과 자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 4.1.4 변명하는 지구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변명을 달성하기 위해(요한의 복음서 10:10) 성공회 전체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 4.2 우리는 성공회 기구(Instruments of Communion)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 4.2.1 하느님의 세계를 위한 하느님의 교회로서 성공회 정체성과 우리의 제자도 및 전인적 선교에 필수적인 다섯 가지 주요 사명(Five Marks of Mission)을 지지합니다.
- 4.2.2 세상을 재구상하고, 사랑의 봉사로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고, 부당한 사회 구조에 도전하고, 피조물을 보호하는 비전을 포함하여 다섯 가지 주요 사명을 홍보함으로써, SDGs의 원대한 목표 달성에 세계성공회가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준비합니다. [교구 활동에 더 뿌리를 두기 위해 글로벌 ‘캠페인’ 개념에서 언어 변경]
- 4.2.3 인류와 지구 모두의 안녕을 위해 다른 신앙 공동체 및 모든 사람과 협력합니다. 특히 여성과 청년들의 기여를 지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킵니다.
- 4.2.4 국가 내부 및 국가 간 불의, 불평등 및 불안정을 조장하는 글로벌 경제 및 정치 시스템을 영속화하는 부당한 구조에 도전합니다.
- 4.3 우리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다음을 촉구합니다.
- 4.3.1 약속합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비전을 포함한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하고 행동할 것을 약속해주십시오.
- 4.3.2 인식합니다: 신앙으로 행하는 자들 및 신앙 기반 조직들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을 지속가능발전과 재난 대비, 회복력 및 대응의 핵심 파트너로 포함하십시오.

#### 5 이행

주교들은 이 청원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선교 계획 및 구현의 우선 순위로 반영하기 위해, 교구 차원에서, 또 교구 대화와 모임에서, 이러한 요청들에 대해 후속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주교들에게 호소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자신의 관구 및 교구 내에서, 성공회 기구 및 선교 및 개발 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이 청원을 실행해 주십시오. 세계성공회 협의회(ACC)와 그 상임위원회는 ACC-19를 포함하여 2030년까지의 상기 구체적 요청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입니다. 유엔 성공회 사무소, 성공회 개발 구제 연합, 젠더 정의 부서 등 ACO 부서, 그리고 관련 성공회 네트워크와 위원회 및 기관들이 협력하여, 성공회 소속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준비하며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환경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본 청원문에 나와 있는 조치를 실천하기 위해 세계적인 기구와 협력할 것입니다.



## LAMBETH CALL 성공회 정체성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겨레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첫째 편지 2:9

### 1 선언

1.1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로부터 이어져 온 교회임을 확증합니다.<sup>i</sup> 교회는 성육신하신 말씀을 통한 하느님의 구속 사역의 열매입니다(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12:5,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3:26-28). 교회는 하느님의 선교를 분별하고 하느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살아 있습니다.

### 2 확인

2.1 성공회 전통은 보편성, 개혁, 국제 선교, 문화를 넘나드는 증거함에 전념하는 공통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공회의 연합과 더 깊은 그리스도인 연합에 대한 희망은 Chicago-Lambeth Quadrilateral (4개 조항)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 i.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며’ 믿음의 궁극적인 기준이자 규범입니다.
- ii. 사도 신조는 세례의 상징이며, 니케아 신조는 기독교 신앙을 충분히 나타내는 진술입니다.
- iii.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두 가지 성사 - 세례와 주의 만찬 - 는 그리스도의 성찬 제정의 말씀과 그분께서 제정하신 요소들을 변함없이 사용하여 거행됩니다.
- iv. 역사적 주교직: 이를 집행하는 방법은 하느님의 교회의 일치 안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과 백성의 다양한 필요에 맞게 지역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sup>ii</sup>

2.2 성서에 근거하고 전통과 이성을 따르는 성공회 신자들은 매우 다양한 문화와 서로 다른 경험 속에서 하느님에 대한 신실함을 추구합니다. 캔터베리 대주교 관구와의 상통 안에서 세계성공회 공동체는 165개 이상의 국가의 상호 의존적인 교회와 관구로 이루어진 하나의 가족으로 성장했습니다.

2.3 그러므로 성공회 신자들은 교회의 가시적이고 제도적인 형태를 믿습니다.<sup>iii</sup> 세계성공회의 각 관구는 자율적이면서도 상호 의존적으로 운영되도록 부름 받았습니. 성공회의 상호의존성을 표현하기 위해 네 가지 상통의 수단(Instruments of Communion)이 마련되었습니다.<sup>iv</sup> 이 네 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i. 캔터베리 대주교
- ii. Lambeth Conference
- iii. 세계성공회 협의회(ACC)
- iv. Primates’ Meeting(의장주교 모임).

세계성공회 소속 교회는 서로 간의 친교, 그리고 상통 수단과의 친교 관계로 정의됩니다.

2.4 우리의 공동 세례는 하느님의 모든 백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역의 삶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부제, 사제(장로), 주교의 삼중 질서에 따른 공통의 안수 사역을 확인합니다. 전례 공동체로 형성되고, 말씀과 성사의 양육되어,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증인으로 나아갑니다.<sup>v</sup>



2.5 우리의 증거함은 지역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이러한 선교에 대한 부름은 성공회의 다섯 가지 주요 사명에 표현되어 있습니다.<sup>vi</sup> 교회의 선교는 그리스도의 선교입니다.

- i.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 ii. 새로운 신자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며 양육합니다.
- iii. 사랑이 담긴 섬김으로 인간의 필요에 응답합니다.
- iv.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변혁하고 모든 종류의 폭력에 도전하며 평화와 화해를 추구합니다.
- v. 창조의 온전함을 지키고 지구의 생명을 지탱하며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3 구체적 요청(청원)

2022년 Lambeth Conference에 모인 주교들은 세계성공회 공동체에 다음을 촉구합니다.

#### 3.1 세계성공회의 비전과 실행을 재구상

공통의 전통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좁힐 수 있고, 제도의 은사가 제도주의를 키울 수 있으며, 권위의 은사가 권력 남용으로 더럽혀질 수 있고, 불일치 가운데 분별에서 찾는 은혜가 분파주의에 의해 낭비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통하는 성공회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원합니다. 우리는 캔터베리 대주교와 세계성공회 협의회가 독립적인 연구 그룹을 설립하여 상통(*koinonia*)이 관구들과 여러 교회 전통에 걸쳐 이해되고 구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연구할 것을 요청합니다.<sup>vii</sup> 이 문화 간 연구 그룹은 성공회 공동체에 대한 신학과 상통에 참여하는 방식을 재구성하고 영감을 주며 새롭게 하는 자원을 만들 것입니다. 이 연구의 초기 설계(방법과 범위, 결과 등을 명확히 정하려는 목적)는 2024년 ACC 상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연구 그룹은 2025년에 첫 연구 결과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 3.2 세계 남방(남반구)에서 국제 및 문화 간 모임 개최 가능성 탐색

작금은 권위주의, 원주민의 취약성과 사회 운동, 종교 간 협력과 갈등, 대규모 이주, 다원주의, 기후 위기, 그리고 과학과 기술의 방대한 변화로 점철된 시대입니다. 그러한 도전과 기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세계성공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념하고 복음에서 찾은 희망을 증거합니다. 원주민 지도자, 여성, 청년, 평신도의 목소리에 우선권을 주며, 우리는 시각, 문학, 공연 예술로 표현되는 여러 문화에서 풍부하게 표현되고 있는 복음을 기쁘게 간증하며 세계 곳곳에 뻗어있는 성공회 가족이 함께 모일 것을 요청합니다.<sup>viii</sup> 이러한 문화적, 다문화적 축제는 성령 분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하여 교회가 기독교 선교의 비전과 실천을 쇄신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성공회 협의회의 상임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성공회 축제 또는 회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조사 그룹을 구성해 주십시오.<sup>ix</sup>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준 틀을 설정하는 초기 보고서를 2025년에 사무총장이 ACC 상임위원회에 발표해야 합니다. 최종 타당성 조사는 탐색 그룹이 2026년 ACC-19에서 발표해야 합니다. 타당하다고 밝혀질 경우 사무총장이 캔터베리 대주교와 협의하여 국제적 성공회 모임을 청하고 행사 기획 그룹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국제적인 모임은 다음 Lambeth Conference 전에 열릴 것입니다.



### 3.3 성공회 기구 검토

우리는 현재 성공회 기구(Instruments of Communion) 검토를 요청합니다.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성공회 기구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그룹을 구성하여 모든 사목 직제(평신도 포함)가 어떤 관계를 맺고 기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표되고 있는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성공회 기구는 목적에 어느 정도까지 목적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기구의 일부(또는 전체)가 현재와 미래의 세계성공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어느 정도까지 재구성될 수 있습니까? 토착민 지도자, 평신도, 여성, 청년과 같이 너무 자주 소외되는 목소리를 집중시키기 위해 추가 기구가 있어야 합니까?<sup>x</sup> 이 검토 내용은 2026년 ACC-19 회의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3.4 다섯 가지 주요 사명에 대한 성공회의 의지 재활성화

우리는 모든 주교가 다섯 가지 주요 사명을 재확인하고 다시 다짐하도록 교구를 이끌 것을 요청합니다.<sup>xi</sup> 세계성공회 협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적절한 세계성공회 네트워크 및 부서와 협의하여, 선교에 대한 이러한 재확인 및 재현신이 세계성공회 전체에 구현되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여러 나라 출신의 성공회 선교학자들로 구성된 국제적 그룹을 소집해야 합니다. 이 연구는 2026년 말까지 발표되어, 세계성공회의 사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공할 것입니다.<sup>xii</sup>

## 인용 자료

- i. 니케아 신조; 세계성공회 일치·신앙·직제 상임위원회(IASCUFO), *Towards a Symphony of Instruments: A Historical and Theological Consideration of the Instruments of the Anglican Communion* (2018), 1-2.
- ii. Lambeth Conference 1888, 결의 11. 성공회 기도서(1662년)에 수록된 의식서(儀式書) 추가 참조.
- iii. Articles XIX–XXI, 성공회 기도서 (1662). 회칙 서신 1.5 (Lambeth Conference, 1878)에 정리된 “Principles of Church Order(교회 질서의 원칙)”도 참조: <https://www.anglicancommunion.org/resources/document-library/lambeth-conference/1878/recommendation-1-union-among-the-churches-of-the-anglican-union-encyclical-letter-15?language=english&year=1878>, 2022년 7월 1일 접속 확인.
- iv. *Towards a Symphony of Instruments* (2018).
- v. 참조: 국제성공회전례협의회(IALC), *Report on Liturgical Formation of All the Baptised* (2021): [https://www.anglicancommunion.org/media/493609/The-Liturgical-Formation-of-All-the-Baptised\\_ACC18\\_IALC\\_2301.pdf](https://www.anglicancommunion.org/media/493609/The-Liturgical-Formation-of-All-the-Baptised_ACC18_IALC_2301.pdf).
- vi. <https://www.anglicancommunion.org/mission/marks-of-mission.aspx>. 참조. 다섯 가지 주요 사명(Marks of Mission)은 1984년 나이지리아 바다그리에서 열린 세계성공회협의회(ACC-6)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Lambeth Conference는 성공회 선교의 새로운 의미(“선교의 본질과 의미”)를 확인했고 1990년 ACC-8에서 생태 위기를 다루는 다섯 번째 사명이 추가되었습니다. 1998년 Lambeth Conference는 다섯 가지 주요 사명을 승인했습니다. 참조: Cathy Ross, “Mission” in Mark D. Chapman, Sathianathan Clarke and Martyn Percy eds., *The Oxford Handbook of Anglican Studies* (Oxford, 2015), 504-515; Robert S. Heaney and John Kafwanka K, “Discipleship in the Mission of God” in Robert S. Heaney, John Kafwanka K, and Hilda Kabia, *God’s Church for God’s World* (New York: Church Publishing, 2020), 1-19.
- vii.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0:16-17.



- viii. **Ka Hao – Praise Is What I Do – YouTube** 이 영상은 한 관구의 청년들이 토착성과 창의적 과정과 관련하여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자신의 원주민 정체성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탐구한 예입니다. 이 와이아타(노래)는 영적, 신학적, 예술적 노력의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 공연 그 자체는 신학과 영적 분별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예술적-신학적 표현은 우리가 국제적, 다문화적 모임의 작업과 증거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전의 한 부분입니다.
- ix. 그러한 국제적인 모임은 1908년 영국 런던, 1954년 미국 미니애폴리스, 1963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성공회 대회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마지막 성공회 대회(1963)에 대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episcopalarchives.org/e-archives/the\\_witness/pdf/1963\\_Watermarked/Witness\\_19630905.pdf](https://www.episcopalarchives.org/e-archives/the_witness/pdf/1963_Watermarked/Witness_19630905.pdf).
- x. 2022년 5월 2일 캔터베리 대주교는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캐나다 원주민 토론을 약속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 “캐나다 원주민에 대한 사과”(보도 자료, 2022년 5월 2일) 참조: <https://www.archbishopofcanterbury.org/speaking-writing/speeches/read-archbishop-justins-apology-indigenous-peoples-canada>, 2022년 6월 23일 자 출처.
- xi. 전도와 복음주의에 대한 Lambeth Call 추가 참조.
- xii. 국제적, 다문화적 모임이 열리기로 판단되면, 이 청원에서 구상한 연구와 탐구가 그 모임을 형성하는 핵심 문서로 기능할 것입니다.





# LAMBETH CALL

## 안전한 교회

### 1 들어가기에 앞서

Lambeth Conference의 주제는 ‘하느님의 세계를 위한 하느님의 교회’였으며 주교들은 베드로의 첫째 편지를 연구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 그들에게 하느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켰습니다(베드로의 첫째 편지 1:1-2). 구약과 신약 모두 거룩하라는 부르심을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적절한 응답으로 표현합니다(베드로의 첫째 편지 1:15-16).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종으로 살아가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믿는 자들의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베드로의 첫째 편지 2:16-17). 기독교 지도자들은 하느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베드로의 첫째 편지 5:1-2).

### 2 선언

2.1 우리는 다음을 깊이 염두에 두고 참고하여 본 청원을 작성하였습니다.

- 교회 환경에서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의 목소리
-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민족, 종교적 신념, 신체적, 인지적 또는 감각적 장애 또는 경제적 취약성과 같이, 폭력, 학대 및 소외에 개인 또는 공동체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의 범위
- 세계보건기구는 다음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최대 10억 명에 달하는 2~17세 아동이 신체적, 성적 또는 정서적 폭력(학대)을 당하거나 방임되었습니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아동의 건강과 안녕에 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 전 세계 여성 3명 중 1명이 일생 동안 파트너 또는 파트너가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이 폭력은 건강에 심각한 장단기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 및 사회에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sup>ii</sup>
-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SDG)는 다음을 목표로 합니다.
  - “인신매매, 성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철폐한다”(세부목표 5.2).
  -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을 종식한다”(세부 목표 16.2).<sup>iii</sup>

2.2 정부 조사, 보고 사례 및 언론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성공회 공동체 내 교회를 포함한 종교 기관들이 보호하는 교회/안전한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종교 기관에서 일하는 일부 성직자 및 평신도들은 신뢰를 저버리고 사목 대상이 되는 아동과 성인들을 학대했습니다. 이러한 폭력과 그 결과를 부인하거나 피해 사실을 축소한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종교 기관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학대의 영향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폭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관련 당국에 학대를 즉시 보고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또, 학대를 당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사목적 돌봄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종교 기관에 대한 평판과 대중의 신뢰가 손상되었습니다.



### 2.3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성서는 인류 가족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린이, 연약한 자들, 소외된 이들에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 2008년 Lambeth Conference에서 다루었던 주제인, 사회와 교회 내에서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불균형적으로 고통받는 다양한 형태의 권력 남용은 오늘날에도 성찰해봐야 할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성과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곧 그리스도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폭력은 신체적, 재정적, 정서적, 심리적, 지적, 문화적, 성적 및 영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 우리는 2012년 세계성공회 협의회(ACC-15)에서 채택한 ‘세계성공회 안전한 교회 헌장’을 이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폭력이 발생한 경우 지원을 제공하고,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목 활동을 위한 기준을 채택하고 장려하며, 사목 적합성을 평가하고, 안전한 교회 문화를 증진한다는 다섯 가지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 우리는 2016년 세계성공회 협의회(ACC-16)에서 받아들인 ‘세계성공회 교회 간 사목 적합성 정보공개를 위한 프로토콜’을 따르겠습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다른 관구로 또는 같은 관구 내 다른 교회로 이동할 때 정보를 공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이 프로토콜을 이행할 것입니다.
- 우리는 2019년 세계성공회 협의회(ACC-17)에서 채택한 ‘세계성공회 관구 내의 모든 사람, 특히 어린이, 청소년, 취약한 성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를 당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사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회에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이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입니다.
- 2019년 세계성공회 협의회(ACC-17)는 세계성공회 안전한 교회 위원회의 존속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제공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위원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 3 확인

3.1 우리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막론하고 교회 내에서 일하는 일부 사람들이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죄악과 범죄를 저질렀음에 깊은 수치심을 느끼며, 부끄럽지만 그들의 죄악과 범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학대와 피해를 입고 계속해서 그 피해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사과합니다. 우리 교회가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음에 대해, 학대 받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돕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회개가 입증되어야 함을 인정합니다.

3.2 우리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 교회의 사명과 하느님 백성의 제자도의 핵심 부분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보살핌을 받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 신학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여야 하며, 따라서 하느님의 세계를 위한 하느님의 교회인 우리의 정체성, 사고 방식, 말, 그리고 행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 우리는 성공회 교회가 모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교회 사목자들이 진실하게 행동하고, 학대의 피해자는 보살핌을 받고 정당한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대를 저지르는 사목자들은 책임을 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폭력을 숨기지 않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 4 구체적 요청(청원)

Lambeth Conference에 모인 주교들은 다음을 촉구합니다.

- 4.1 주교로서 다음을 통해 우리가 돌보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다할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촉구합니다.
- 학대를 경험한 이들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고 동료 주교들과 지속적으로 나누는 훈련을 통해 우리 자신이 필요한 지식, 이해, 연민, 분별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 세계성공회 안전한 교회 헌장을 채택합니다.
  - 사목 적합성 정보 공개를 위한 의정서를 이행합니다.
  - ‘세계성공회 관구 내의 모든 사람, 특히 어린이, 청소년, 취약한 성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 모든 교구가 각 상황과 지역 자원에 적절한 안전한 교회 구조/시스템을 시급한 문제로 마련하도록 합니다.
  - 관련 당국 및 기관에 아동 학대를 신고하기 위해 모든 유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 어린이, 청소년 및 취약한 성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법적, 그리고 정부 기관 차원의 관행적 변화를 지지하고 옹호합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 우리는 세계성공회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의 진전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과, 우리 관구와 교구 중 일부는 이 일에 독특한 도전을 제기하는 전쟁, 자연 재해 등의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합니다.

- 4.2 세계성공회 관구의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협의회의 집중, 자원 할당, 행동의 우선 순위로 만들 것을 성공회 기구들에 촉구합니다.
- 4.3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를 당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목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훈련 및 인력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와 기관의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해줄 것을 관구와 교구 사람들에게 촉구합니다.
- 4.4 SDG 세부목표 5.2 및 16.2(상기 2.1 참조)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세계 지도자들에게 촉구합니다.

우리가 돌보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책임과 이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대표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약속합니다.

#### 인용 자료

- i. 세계보건기구, Fact sheet, 아동에 대한 폭력, 2022년 11월 29일 [i아동 폭력 \(who.int\)](https://www.who.int).
- ii. 세계보건기구, Fact sheet, 여성에 대한 폭력, 2021년 3월 9일, [여성에 대한 폭력\(who.int\)](https://www.who.int)
- iii.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는 2015년 9월 유엔 정상회담에서 시작되었으며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LAMBETH CALL

## 과학과 신앙

### 1 들어가기에 앞서

- 1.1 세계는 앞으로 10년 동안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빈곤, 질병, 전쟁, 기근, 신기술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해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Lambeth Conference에 모인 주교들은 과학 안에서 신앙 생활을 위해 하느님이 주신 자원을 인식하고 과학 연구에 신앙의 지혜를 제공하도록 모든 세계성공회 공동체의 모든 교회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용감하고 신뢰할만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로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교회 지도자들과 과학자들을 지원하고 육성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 1.2 주교들이 이를 청원하는 이유는 베드로의 첫째 편지 ‘하느님께서 주신 갖가지 은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라고,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느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베드로의 첫째 편지 4:10). 전 세계 성공회에는 경험이 풍부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에 제공할 과학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공회 신자들입니다. 더욱이 많은 과학자들은 하느님의 다양한 은혜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신앙의 지혜, 특히 기독교의 지혜를 바라봅니다. 게다가, 베드로의 첫째 편지는 이러한 은총을 나눌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힘을 받은 사람답게’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베드로의 첫째 편지 4:11). 다시 말해, 성공회 과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혼자가 아니라, 그분께 의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를 갖춥니다.

### 2 선언

- 2.1 여러 차례의 Lambeth Conference에서 세계성공회 공동체에 교회가 과학 기술 분야와 교류할 것을 호소해왔고, 보다 최근에는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준비 단체(ECLAS)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sup>i</sup>, 과학과 신앙 사이의 간극의 인식은 더욱 커졌으며, 세계성공회의 여러 영역에서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과학자들은 제자로서 소명을 확신하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신앙의 지혜를 과학적 질문으로 끌어 낼 자신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 2.2 캔터베리 대주교가 최근에 말했듯이, ‘과학과 신앙의 관계는 지속적이고 주요한 변화를 향한 매우 실제적이고 강력한 경로를 제시합니다. [세계 성공회로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지역 사회에 대한 헌신 그리고 소망은 지식 및 전문 과학 지식과 결합하여 강력한 연맹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sup>ii</sup>
- 2.3 더욱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40명의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연합은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청원문을 2021년 10월에 발표했습니다. ‘신앙과 과학은 인류 문명의 본질을 이루는 기둥이며, 같은 원리를 공유하며 상호 보완적입니다... 우리는 과학의 지식과 종교의 지혜를 활용하여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지식을 넓히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sup>iv</sup>

### 3 확인

- 3.1 주교로서 우리는 이 세대에 하느님의 세계를 위한 하느님의 교회가 되라는 우리의 소명을 이행하려면, 다가오는 결정적인 10년 동안 세계성공회 공동체의 모든 부분에서 과학과 신앙 사이의 간극에 대한 인식을 잠재워야 한다고 믿습니다.<sup>v</sup>
- 3.2 과학자와 신학자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공회의 각각 다른 교회 간의 동반자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나라의 역사 속에서 과학이 맡았던 역할을 인식할 때, 기독교 신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를 얻기 위한 성공회 신학(성경, 이성과 전통)을 활용할 때 신앙과 과학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 3.3 우리들은 Lambeth Conference를 위해 모인 주교들로서, 세계성공회의 여러 지역에서 과학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확립하고, 하느님께서 신앙생활을 위해 주신 자원을 인식하고, 과학에, 특히 전 세계 과학 기술 윤리와 불평등한 영향에 대해 기독교 신앙의 지혜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계와 대화를 환영하고 대화에 참여하기로 약속합니다.
- 3.4 우리는 에큐네미컬 및 종교 간 파트너들과 정부(가능한 경우)와 협력하는 성공회 교회들이 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교회 지도자들과 과학자들이 함께 이러한 용감하고 신뢰할 만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세계성공회 및 다른 교회들의 다른 위원회, 네트워크, 기관들을 통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 관계를 활용해야 합니다.

#### 4 구체적 요청(청원)

- 4.1 우리는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성공회 신자들에게, 세계성공회의 여러 지역에서 과학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확립하고, 하느님께서 신앙생활을 위해 주신 자원을 인식하고, 과학에, 특히 전 세계 과학 기술 윤리와 불평등한 영향에 대해 성공회 신학의 지혜(성서, 이성, 전통)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계와 대화에 참여하기를 호소합니다. 다섯 가지 주요 사명(Five Marks of Mission)을 프레임워크로 사용하여 다음 방식으로 과학계와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다.* 과학 안에서 하느님께서 믿음의 삶을 위해 주신 자원을 인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이 선포와 믿음의 장벽이 된다는 관념을 없앱니다.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에 영감을 주는 대상으로서 과학을 활용합니다.
  - *새로운 신자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며 양육합니다.* 과학 안에서 기독교 믿음의 토대를 찾고, 과학 분야의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과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새로운 신자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확인합니다.
  - *사랑이 담긴 섬김으로 인간의 필요에 응답합니다.* 신체 및 정신 건강 관리부터 물/식량 안보에 이르는 문제에 과학적 자원을 활용합니다.
  - *사회의 부당한 구조를 변혁하고 모든 종류의 폭력에 도전하며 평화와 화해를 추구합니다.* 과학이 불평등과 갈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과학 지식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인공 지능, 유전학, 원자력 기술 등 신기술 사용에 윤리와 신앙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 *창조의 온전함을 지키고 지구의 생명을 지탱하며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질 세계를 돌보라는 기독교의 신학적 동기에 이바지하고 탐욕을 뒤돌아보며 하느님의 피조물에 책임감 있게 관여하라는 윤리적 명령에 응합니다.
- 4.2 우리는 과학계와의 소통을 이끌고 이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세계성공회 과학위원회의 설립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 위원회는 이 청원문에서 비롯되는 작업에 대한 효과적이고 용이한 소통을 제공할 것입니다.
- 4.3 학교, 신학교, 신학 대학, 훈련 프로그램들이 하느님이 믿음의 삶을 위해 주신 자원으로 과학계와 신학적 대화를 환영하고 시작하고, 과학에 신앙의 지혜를 담는 모범을 보여주기를 호소합니다. 이로써 평신도들과 성직자들을 포함한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도 제자로서, 공적 사목자로서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세계성공회 신학교육위원회(CTE)가 이에 앞장서 주기를 요청합니다.



- 4.4 세계성공회의 모든 교회가 과학 담당 주교를 지정하고(아직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각 관구 내 과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본 안건을 추진하며 세계성공회 과학프로젝트(Anglican Communion Science Project)의 연계와 지원 위원회의 설립 가능성을 타진하기를 촉구합니다.<sup>vi</sup> 특히 이러한 위원회에 젊은 과학자들을 초청할 것을 요청합니다.
- 4.5 성공회 제자들이 이 세계의 시민으로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하느님의 세계를 위한 하느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제자의 안녕과 모든 교회의 사명에 필수적인 존재로서의 과학에 대한 이해에 있어 성장할 것을 모든 성공회 제자들에게 촉구합니다.

## 5 이행

이 부름에 대한 응답은 Lambeth Conference 2022에서 출범하고 성공회 과학자들과 신학자들로 구성된 세계성공회 과학위원회가 이끌 것입니다. 이 작업은 세계성공회 과학프로젝트에 의해 촉진될 것이며, 해당 프로젝트는 옥스퍼드, 케이프타운 및 케냐 리무르 세인트폴 대학 등의 2~3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원회는 목표와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차기 Lambeth Conference에서 이 중요한 10년 동안의 진척 상황을 보고할 것입니다.

## 인용 자료

- i. 예를 들어, 1978년 Lambeth Conference 결의 1 & 2, 첨부된 해설서 65~67쪽을 참고하십시오.
- ii.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지도자들 준비’(ECLAS)는 2013년에 설립된 단체로, 영국 위주의 단체였으나 나중에 북아메리카도 비슷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https://www.eclasproject.org>
- iii. 캔터베리 대주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연설, 2021년 2월 [캔터베리 대주교가 COP26 기후 변화 회의에 앞서 국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연설 | 캔터베리 대주교](#)
- iv. 교황청: 신앙과 과학,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위한 호소문 (40명의 종교 지도자와 과학계를 선도하는 과학자들의 공동 선언문): [교황청: 신앙과 과학: COP26에 대한 호소 - GOV.UK\(www.gov.uk\)](#)
- v. 식민지 역사에서 과학은 결백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성공회의 특정한 부분에서 이러한 면모가 느껴집니다. 그 균열은 ‘신앙’과 ‘과학’ 사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더 복잡하게 존재합니다.
- vi.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주요 글로벌 신탁에 자금 요청을 하였습니다.



# LAMBETH CALL HUMAN DIGNITY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베드로의 첫째 편지 1:3

## 1 선언

- 1.1 하느님의 선한 창조의 선물(창세기 1:31) 가운데 인류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으며 하느님의 돌봄과 사랑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창세기 1:26-28).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주할 때마다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영광의 반영된 모습을 봅니다.”<sup>ii</sup>
- 1.2 그리스도의 사명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혜와 모든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요한의 복음서 3:16, 골로시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1:15-20,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5:18-19,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15:22,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5:14-17, 베드로의 첫째 편지2:9).<sup>iii</sup> 인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살아있는 희망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베드로의 첫째 편지 1:3, 베드로의 둘째 편지 1:14).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자로서 인간은 하느님과 서로를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 4:11).<sup>iv</sup>
- 1.3 하느님의 피조물의 놀라운 다양성은 인간의 다양성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독특하고 깊은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sup>v</sup>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이러한 다양성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오순절과 요한의 묵시록 7:9에 나와 있는 환상은 성령의 연합하는 능력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고 서로의 선을 위해 사용될 때 다양성이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를 보여줍니다.<sup>vi</sup>
- 1.4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느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요한의 복음서 10:30, 골로시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1:15-16).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느님의 형상을 손상시킵니다.<sup>vii</sup>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느님의 승리를 인정합니다(베드로의 첫째 편지 2:24, 베드로의 첫째 편지 3:18,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5:8). 각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보존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완전한 잠재력을 볼 수 있습니다.<sup>viii</sup> 중생의 은사와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된 백성인 교회는 하느님의 형상을 지니고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베드로의 첫째 편지 3:9-10,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3:28).
- 1.5 그러므로 보편 교회는 생명은 신성하며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생명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선언합니다.<sup>ix</sup> 그러한 거룩한 기준에서 신실한 반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 2 확인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3:9) 인간의 생명이라는 은총과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sup>x</sup> 예수님이 자신을 부정한 자와 배신한 자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요한의 복음서13:12-17, 34-35).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느님 자녀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행동과 태도는 죄입니다. 식민주의, 대서양 노예 무역 등의 권력 남용의 잔재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sup>xi</sup> 누군가는 부를 쌓았고 누군가는 가난해졌습니다. 착취의 부당한 구조 위에 세워진 국제 경제 체제는 비인간적인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토지, 건강 및 교육에 대한 접근에 대한 깊은 불평등, 청년 착취, 부당한 노동 관행, 소수 민족, 이민자 및 난민에 대한 홀대, 인신매매의 비인간성, 종교적 박해, 양심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압력, 성소수자 억압, 젠더 기반 폭력, 전쟁, 분쟁 중 성폭력에서 그러한 죄가 부분적으로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신실하게 대하는 건 경건한 공동체의 핵심 표식입니다(베드로의 첫째 편지 4:8-10).



- 2.1 하느님께서서는 생명을 불어넣는, 문화를 아우르는 공동체를 의도하십니다. 지역 선교 노력과 상황적 신학은 여러 문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깊은 수용, 논쟁, 채택 및 적응이 이루어짐을 증명합니다.<sup>xii</sup> 그러나 성공회는 종종 식민주의의 맥락에서 국제화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문화적, 인종적 우월주의에 입각한 비인간화 관행에 연루된 제국주의적 성공회의 존재 및 지속적 영향을 인정합니다.<sup>xiii</sup>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모두는 상황화 신학의 풍부한 다양성을 환영하고, 잔인하고 착취적인 식민주의에 성공회가 가담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2.2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사회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줍니다.<sup>xiv</sup> 빈곤 퇴치에 진전이 있었지만<sup>xv</sup>, 세계적인 전염병, 인플레이션 상승, 전쟁으로 인해 빈곤 감소가 전례 없이 역전되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기후 비상사태(지구 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등)는 현재와 미래에 빈곤을 근절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창출하려는 노력에 도전적인 불안정성과 식량 불안을 야기합니다.<sup>xvi</sup> 2020년에는 1억 2000만~1억 2400만 명이 추가로 극심한 빈곤에 빠졌습니다.<sup>xvii</sup> 2022년에는 6억 5,700만~6억 7,600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 처할 것으로 추산됩니다.<sup>xviii</sup> 우리는 이러한 수치에 안타까워하며 빈곤이 여성들과 여아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통탄합니다.<sup>xix</sup>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다짐이란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연대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불의에 맞서 증언함을 의미합니다.
- 2.3 젠더나 섹슈얼리티에 근거한 편견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합니다. 성공회 정치적 특성, 특히 관구의 자율성을 고려할 때 인간 존엄성과 인간의 섹슈얼리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견 불일치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깊어지는 대화에서 존엄성 보호를 경험합니다. 성공회 전체는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믿으며 신실한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한 지체”이며 존중받고, 돌보고, 정중히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I.10, 1998).<sup>xx</sup> 신중한 신학적 성찰과 분별의 과정을 거친 후, 많은 관구에서는 동성 결혼이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Lambeth 결의안 I.10(1998)은 “동성 결합의 합법화 또는 축복”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sup>xxi</sup> 다른 관구에서는 신중한 신학적 성찰과 분별 과정을 거쳐 동성 결합/결혼을 축복하고 환영했습니다. 주교로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깊은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경청하고 함께 걸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3 구체적 요청(청원)

성서는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내재적으로 존엄성이 있으며 평등하다고 증거합니다. 세계성공회 공동체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두 하느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평등합니다. 실제로 하느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에서 세상 문화의 풍요로움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요한의 묵시록 21:24). 그러므로 2022년 Lambeth Conference에 모인 주교들은 모든 피조물과 문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것을 교회에 촉구합니다. 우리는 세계성공회에 다음을 촉구합니다.

- 3.1 회복적 행동을 위한 대주교 위원회(Archbishop's Commission for Redemptive Action, ACRA) 설립 지지
- 이 작업에는 네 가지 이상의 과제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첫째, 캔터베리 대주교는 다수 세계(Majority World)의 신학자(식민주의와 노예제를 경험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를 의장으로 하는 성공회 신학자 그룹으로 ACRA를 소집해야 합니다. ACRA는 대서양 동산 노예 제도에 대한 교회의 역사적 연관성에 대해 영국 성공회 재무위원회(Church Commissioners for England)가 작성한 보고서와 포렌직 회계를 연구할 것입니다.<sup>xxii</sup>
- 둘째, ACRA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구속이라는 위대한 성서적 전통과 화해의 사역에 대한 교회의 부름에 근거하여(고린토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5:17-19) 만회적 행동 및 배상의 통전적 신학을 수립하고 발표할 것입니다.<sup>xxiii</sup> 우리는 캔터베리 대주교(영국 성공회 재무위원회의 운영위원장)에게 요청합니다. 이러한 신학이 식민주의와 노예제에 대한 교회의 연결 고리에 대한 위원들의 대응을 형성하도록 해 주십시오.
- 셋째, ACRA는 성공회 재무 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복적 행동의 세계성공회 전반의 증인이 되는 기준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파악할 것입니다.
- ACRA는 분기별 진행 보고서를 캔터베리 대주교와 세계성공회협의회(ACC)에 제공합니다.





### 3.2 세계 성공회 전반에 걸친 사회적 보호 자금 지원 조치

이러한 행동은 가능한 경우 정부에 사회 보호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보호를 위해 행동하는 세계성공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첫째, 관련 출처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다음 Primates' Meeting(의장주교 모임)에서 의장주교들은 자신이 처한 맥락에서 사회적 보호가 의미하는 바를 함께 탐구해야 합니다.<sup>xxiv</sup> 의장주교들은 사회 보호 제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잠재력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동시에, 주교와 교구가 지역 상황에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할 것입니다.

둘째, 빈곤은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다면적 문제” 이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제도적, 정신적 자원을 동원해야 합니다.<sup>xxv</sup> 빈곤 퇴치, 특히 청년 빈곤에 대해 영적인 차원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며 접근하기 위해 ACC에 성공회 혁신 기금(Anglican Innovation Fund, AIF)을 설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기금은 사회적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빈곤 퇴치를 위한 프로젝트나 기업을 설립하는 청년(18-30세)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넓힐 것입니다. 3.1과 관련하여 이 이니셔티브는 역사적인 노예 제도의 부당함에 대한 ACRA 및 성공회 재무위원회의 대응으로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3 세계성공회 사무국의 업무를 확장하여 섹슈얼리티와 젠더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

우리는 ACC에 요청합니다. (ACO의 관련 네트워크 및 부서 및 Lambeth 1998 결의안 I.10을 참고하여) 젠더 정의에 대한 ACC의 노력이 인간 존엄성을 향한 관구 내 및 관구 사이의 비전과 실천을 젠더 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에도 관심을 기울여 도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할지 여부를 검토해 주십시오. ACC-19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구 및 관구 간 보고서가 제출되고 추가 권고 사항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인용 자료

- i. 세계 성공회 일치 신앙 직제 위원회(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하느님의 선물과 인류에 대한 부름: 성공회 신학 인류학: 일치 신앙 직제 보고서 3(London: ACC, 2021), 9, 12, 14–25, 42  
[https://www.anglicancommunion.org/media/460188/UFO\\_IASCUFO\\_Papers-3-and-4-God-So-Loved-the-World\\_v2\\_en.pdf](https://www.anglicancommunion.org/media/460188/UFO_IASCUFO_Papers-3-and-4-God-So-Loved-the-World_v2_en.pdf) 저술 참고. 기독교 전통의 장애: 읽기(Grand Rapids: Eerdmans, 2012); 세계 교회 협의회, 존재라는 선물: 모든 이를 위한 모두의 교회가 되라고 부름을 받다(2016) <https://tinyurl.com/7kyvdnrb>
- ii. 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24
- iii. 성공회-정교회 신학적 대화를 위한 국제 위원회(ICAOTD),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희망 가득한 인류학 (“The Buffalo Statement”, 2015), 5–12. Lambeth 1998, I.10c; 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75–77.
- iv. 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34–40.
- v. 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24.
- vi. 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10–11.
- vii. 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12, 50–57.
- viii. 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9–11, 30–35.



- ix. ICAOTD,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Lambeth 2008, 섹션 C(인간 및 사회 정의); Lambeth 1998, I.1, 2, 4, 5, 9, 14, 15; III.21, 22.
- x. 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26-30.
- xi. 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53-54. 참조: Jeremy M. Bergen, 교회의 회개: 죄 지은 과거를 마주하는 교회 (London: T&T Clark, 2011); 국제노동기구(ILO), Walk Free,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현대판 노예제, 강제 노동 및 강제 결혼에 대한 세계적 추정 (Geneva: ILO 간행물, 2022)
- xii. 참조: Lamin Sanneh, 메시지를 번역하다: 문화에 미치는 선교의 영향 개정판 (Maryknoll: Orbis, 2009); Jehu H. Hanciles, 이주 그리고 세계적 기독교 형성 (Grand Rapids: Eerdmans, 2021); William L. Sachs and Robert S. Heaney, 성공회의 약속 (London: SCM, 2019).
- xiii. 참조: Rowan Strong, 성공회와 영국 제국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Ian T. Douglas & Pui-lan Kwok eds., 식민주의 성공회를 넘어서: 21세기의 세계성공회 공동체 (New York: Church Publishing, 2000).
- xiv. 참조: 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52-54.
- xv. Andrea Peer and Sevil Omer, “세계적 빈곤: 사실, 자주 묻는 질문, 도울 수 있는 방법” <https://www.worldvision.org/sponsorship-news-stories/global-poverty-facts>, 2021년 8월 23일 (2022년 6월 10일 발췌).
- xvi. UN, 총회, 73차 세션(2018년 10월 18일), 제2위원회, 의제 항목 24(a), “빈곤 퇴치 및 기타 개발 문제: 빈곤 퇴치를 위한 제3차 UN 10년(2018-2027) 이행”, 4. 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12-13, 58-67.
- xvii. <https://sdgs.un.org/goals/goal1> 2022년 6월 10일 자 출처.
- xviii. ‘극심한 빈곤(extreme poverty)’의 기준은 하루 1.90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함. 참조: Daniel Gerszon Mahler, Nishant Yonzan, Ruth Hill, Christoph Lakner, Haoyu Wu and Nobuo Yoshida, “팬데믹, 물가, 그리고 빈곤” <https://blogs.worldbank.org/opendata/pandemic-prices-and-poverty>, 2022년 4월 13일(2022년 8월 10일 자 출처). 2022년 6월 11일 자 <https://www.un.org/en/global-issues/ending-poverty> 참조. 기후 변화 및 이주 패턴에 대한 정보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의 6차 평가 보고서에 대한 워킹 그룹 III 기여, “기후 변화 2022: 기후변화의 이주” (2022년 4월), 2-54 - 2-55; 3-96 - 3-109. [https://www.ipcc.ch/report/ar6/wg3/IPCC\\_AR6\\_WGIII\\_FinalDraft\\_FullReport.pdf](https://www.ipcc.ch/report/ar6/wg3/IPCC_AR6_WGIII_FinalDraft_FullReport.pdf) 2022년 6월 27일 자 출처.
- xix. UN, 총회, 73차 세션(2018년 10월 18일), 제2위원회, 의제 항목 24(a), “빈곤 퇴치 및 기타 개발 문제: 빈곤 퇴치를 위한 제3차 UN 10년(2018-2027) 이행”, 3.
- xx. Lambeth 1998, 1.10 c, d
- xxi. Lambeth 1998 1.10 e
- xxii. <https://www.churchofengland.org/sites/default/files/2022-06/Church%20Commissioners%20research%20report%20final.pdf> 2022년 6월 28일 자 출처.
- xxiii. 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75-77. 참조: IASCUFO, 하느님의 주권과 우리의 구원: 성공회 신학 성명서: 일치 신앙 직제 보고서 4 (London: ACC, 2021), 82-84.



- xxiv. 사회적 보호란 근로 조건의 극적인 변화나 충격적 변화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나 시스템입니다. 사회적 보호는 고용주가 직원과 위험을 분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예를 들어 연금 혜택, 저금리 대출, 의료서비스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등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위험 분담”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Truman Packard, Ugo Gentilini, Margaret Grosh, Philip O’Keefe, Robert Palacios, David Robalino, and Indhira Santos, *Protecting All: Risk Sharing for a Diverse and Diversifying World of Work*(모두를 보호하다: 다양하고 다각화 되어 가는 일터 세계를 위한 위험 분담 (Washington D.C.: 국제부흥개발은행/세계은행, 2019)<https://bitly.ws/zBmR> 2022년 6월 21일.
- xxv. UN, 총회, 73차 세션(2018년 10월 18일), 제2위원회, 의제 항목 24(a), “빈곤 퇴치 및 기타 개발 문제: 빈곤 퇴치를 위한 제3차 UN 10년(2018–2027) 이행, 3.



# LAMBETH CALL

## 하나 된 기독교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며 자비심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베드로의 첫째 편지 3:8

### 1 선언

*우리의 에큐메니컬 이야기*

- 1.1 100여 년 전, 1920년 세계 성공회 주교들은 Lambeth Conference에 모여 모든 기독교인에 대한 호소문 (An Appeal to all Christian People)을 발표했습니다. 호소문에는 복음의 화해의 힘을 증거하고 모든 민족을 회개와 신앙으로 부르는, 가시적으로 연합된 교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 추구를 그들의 열렬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은 2022년 Lambeth Conference에서 모인 주교로서, 그들의 부름을 새롭게 듣고, 이제 교회의 일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합니다.
- 1.2 ‘모든 기독교인에 대한 호소문’은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전 세계적 교회 일치 운동(또는 에큐메니컬 운동, Ecumenical movement)에 대한 성공회 참여의 활기차고 감동적인 발걸음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운동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서로 다른 기독교 전통 간의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잠재적으로 적대적일 수 있는 이방인이 아닌, 코이노니아(koinoia)와 선교의 심화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성공회 신자들은 남아시아의 여러 교회 연합에 참여했고 세계적이고 지역적인 맥락에서 교류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위트레흐트 동맹과 본 합의(Bonn Agreement)를 기념하고, 몇몇 루터교회 등과 따뜻하고 긍정적인 친교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등 다자간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노력과 대화의 약속도 맺었습니다.
- 1.3 오늘날 에큐메니즘(교회 일치 운동)은 다양한 형태를 취합니다. 교회들이 평화와 정의를 위해 협력한 곳에서 우리의 공동 생활과 증언은 헤아릴 수 없이 강화되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환경과 피조물 보호에 대해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교회 일치가 성장해나감을 환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Lambeth Palace 내 안셀무스 공동체(Community of St. Anselm) 등의 의도적 에큐메니컬 공동체의 맥락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환영합니다.

*계속되는 도전과제*

- 1.4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신앙과 질서 문제에서 일치를 가져오는 진전이 더디었습니다. 교리 문제가 상당 부분 수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에 대한 합의는 더 까다롭고, 교회의 다양한 거버넌스 방식과 관습은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룬드 원칙(Lund Principle, 교회는 ‘신념의 깊은 차이로 인해 개별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께 일하도록 노력해야 함)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1.5 교회의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에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상처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은 이들이 분열로 인해 소원해지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사와 사역에 대해 서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이유로 성찬례를 함께할 수 없는 오랜 애석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정부의 규제, 핍박, 심지어 테러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삶과 증언이 취약해지는 시대에, 화해의 복음에 대한 교회의 증언을 약화시킵니다.



## 2 확인

### 성공회의 약속

- 2.1 Chicago-Lambeth Quadrilateral(4개 조항)을 시작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일치의 목표는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습니다. 세계성공회 협의회(ACC-14, 2009)는 교회 일치의 4가지 원칙(Four Principles of Ecumenism)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표: 교회의 완전한 유기적 일치.
  - 과제: 서로 안에서 교회를 인정하고 받아들임.
  - 과정: 단계별 일치.
  - 내용: 공동 신앙, 성사, 그리고 사.
- 2.2 세계성공회의 주교로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베드로의 첫째 편지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춧돌 위에 세워진 하느님의 창조물이라는 점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부르심 안에서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겨레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베드로의 첫째 편지 2:9).
- 2.3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2.3.1. 세계성공회 공동체의 교회들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일부입니다.
- 2.3.2. 세계성공회 공동체의 소명에는 그리스도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추구하는 약속이 포함됩니다.
- 2.3.3. 분열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독교 교회들의 성령의 역사의 열매, 복음 선포에 대한 헌신, 우리 삶에서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사에 대한 충실함을 인정합니다.
- 2.3.4. 교회 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성공회 교회는 다른 교회, 친교 공동체 및 전통으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배움을 통해 은혜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3.5. 성공회 신자들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과 부름이라 믿는, 온전하고 유기적인 연합을 향해, 가능한 한 다른 교회와 함께 선교하고 사역해야 합니다.

## 3 구체적 요청(청원)

### 3.1 행동 촉구

우리는 성공회 기구와 교회, 성공회 신자들에게 촉구합니다.

- 3.1.1 교회의 온전한 유기적 일치를 긴급히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쇄신합니다.
- 3.1.2 에큐메니칼 관계의 열매를 받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 3.1.3 관구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튼튼하고 긴밀한 관계를 구축합니다.
- 3.1.4 세계성공회 공동체 안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분리된 교회와 그룹이 생겼으며, 같은 성공회 전통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열되어 있음을 인지하는 가운데, 성공회 교회 가족 안에서 화해와 일치를 추구합니다.
- 3.1.5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세상의 필요에 응답하는 사명에 있어 다른 교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일합니다.
- 3.1.6 박해를 받는 형제자매와 함께,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높입니다. 몸의 한 부분에 통증이 생기면 온 몸이 아픈 법입니다.



3.1.7 다른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을 보고, 부요한 기독교 전통에서 성공회가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 모색합니다.

3.1.8. 지역, 지방, 전 세계적 차원에서 그리스도 교회의 온전하고 가시적인 상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남아 있는 신학적, 교회론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가능하면 다른 교회와 공식적인 상통 관계를 수립하고, 온전한 유기적 연합을 목표로 노력합니다.

### 3.2 교회 일치로의 초대

세계 교회 협의회의 신앙과 직제를 다룬 문서인 ‘교회: 공동 비전을 향하여’는 교회 일치 노력을 ‘신앙의 일치, 성사의 삶의 일치, 섬김의 일치’(67번째 문단)로 향하는 부르심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는 에큐메니컬 파트너에게 다음 내용을 촉구합니다.

3.2.1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깊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3.2.2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의 삶을 쇄신하며, 공동선을 위해 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지역 이니셔티브에 함께 참여하도록 이웃 성공회 교회들을 초대해 주십시오.

3.2.3 신앙이라는 공동 유산의 부요함과 분리된 역사와 경험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을 나누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베드로의 첫째 편지 4:10 참조).

3.2.4 완전하고 유기적인 일치로 나아가는 단계를 함께 밟아 나가 주십시오.

3.2.5 교회 일치 운동의 성과에 감사하며, 서로가 삶과 사역에서 교회 일치를 향한 노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기를 촉구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기도를 항상 상기합니다(요한의 복음서 17:20).

## 4 이행

4.1 세계성공회 협의회 세계성공회 소속 교회와 성공회 기구 내에서 내에서 이 부름이 실행되도록 복돋고 모니터링하는 임무는 주로 세계성공회 협의회(ACC)에 있으며, 세계성공회 일치·신앙·직제 상임위원회(IASCUF0) 및 세계성공회 사무국(ACO)를 통해 해당 임무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4.2 우리는 ACC와 사무총장에게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4.3 IASCUF0가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및 감독하고 ACC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합니다.

4.4 우리는 회원 교회들이 이 분야의 진전과 도전과제에 대해 ACO의 일치, 신앙 및 질서를 부서를 통해 IASCUF0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합니다.



# LAMBETH CALL

## 전도와 복음주의

### 1 들어가기에 앞서

- 1.1 성공회 교회에서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교들로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복음주의에 대한 청원문을 발표합니다.
- 1.2 하느님의 백성은 선택되고, 구별되고, 준비되고, 하느님의 세계로 보냄을 받았으므로,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첫째 편지 2: 9].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느님의 큰 자비를 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낳아 주시고 우리에게 산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도 않는 분깃을 하늘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을 그만하고, 천사들이 보기를 갈망했던 아름다운 복음을 모두에게 전하게끔 하십니다. 영의 합일, 하느님의 은혜에 답하는 삶은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고통, 우리의 헌신, 섬김, 환대와 소망은 모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 2 선언

- 2.1 세계성공회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는 이 소명을 기쁨과 용기로 공유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주요 사명은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 2.2 전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즉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이 여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박하더라도 무서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답변을 할 때에는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첫째 편지 3:14-16]*

- 2.3 우리의 모든 선교와 전도는 하느님의 선교에서 시작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의 힘을 통해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이끄시기 위해 끊임없이, 충실하게, 급진적으로 일하시는 위대한 전도자이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에 대해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여 받은 그분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대리인으로서 함께 일하도록 당신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 2.4 세계성공회의 모든 교회는 하느님의 선교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597년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교황 그레고리오 1세의 명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캔터베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문화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소명과 힘의 증거가 됩니다. 각 교회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셨기 때문에 설립되었으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에 대한 응답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 2.5 우리는 교회를 감독하도록 부름을 받은 이들로서, 교회의 사명을 이끄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사도의 표징입니다.



### 3 확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이 세상이 복음이 선포하는 구원과 속량을 받아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즉,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이 좋은 소식을 듣는 걸 의미합니다. 은혜와 자비, 회개와 용서, 화해와 청지기 직분, 희망과 영원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은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대상은 바로 이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상적인 인간이 아닌 있는 인간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이상적인 세상이 아닌 실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디트리히 본회퍼]. 하느님은 위대한 사랑을 통해 모든 이들을 부르시기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이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도록 성령은 우리 마음에 임하였습니다.

### 4 구체적 요청(청원)

- 4.1 각 교구와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의 경이로움과 권세로 쇄신되기를 열렬히 추구해야 합니다.
- 4.2 각 교구와 모든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와 경청과 분별에 전념하여 그리스도를 충실히 증거하고 진정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과 정신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4.3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헌신해야 합니다.
- 4.4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소명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매년 적어도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 4.5 세계성공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 사역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 부름 안에서 함께 경청하고 배우고 격려하기로 약속합니다.
- 4.6 주교들이 이 복음전도를 이끌 수 있도록 준비되고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주교들은 사도의 본보기를 따라 담대한 선포로 하느님의 세계의 하느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 4.7 각 교구는 전도자를 소중히 여기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환영합니다.
- 4.8 각 교구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교회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회중을 개척하기 위해 신선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4.9 박해를 받는 교회들이 그들의 증거함에서 지지받고, 보호받으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합니다.
- 4.10 전도·제자훈련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이 분야의 진전을 지원하고 추적하여, 차기 세계성공회 협의회(ACC)에 보고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합니다.





## LAMBETH CALL

### 종교 간 관계

#### 1 들어가기에 앞서

- 1.1 종교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오늘날의 세계는 베드로의 첫째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복음의 희망에 대해 증언합니다(베드로의 첫째 편지 3:15-16). 이는 더 넓은 공동체를 위한 축복과 섬김의 표징이며(베드로의 첫째 편지 2:12), 적대감과 핍박 앞에서 그 진실함으로 모든 이에게 드러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입니다(베드로의 첫째 편지 4:13-14).

#### 2 선언

- 2.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신 생명으로 힘을 얻어 “땅 끝에 이르기까지(사도행전 1:8)”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약속하셨습니다.
- 2.2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성공회가 어떻게 하느님의 세계를 위한 하느님의 교회(God’s Church for God’s World)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성공회에 지속적인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성공회의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세례와 제자도로 부를 자유가 있으며, 다른 종교적 전통을 따르는 우리 이웃들도 팬데믹이나 기후 변화와 같은 공통의 우려에 대처하며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성공회 신자들은 적대감과 심지어 박해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1988년 Lambeth Conference의 권한으로 1993년에 세계성공회 공동체를 위한 종교간 문제 네트워크(NIFCON)가 설립된 이유입니다. 세계성공회 공동체 전반에서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만난 경험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
- 2.3 2008년 Lambeth Conference에서 ‘아낌없는 사랑: 복음의 진리와 대화로의 부름’이 제시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중요한 로마 카톨릭 목회 헌장인 Nostra Aetate(비 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의 정신에 따라, Lambeth Conference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표시로서 다른 신앙을 가진 이웃들과 공존해야 하며, 하느님의 선교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이웃과 관계를 맺도록 하느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공동체가 크든 작든, 장소가 안전하든 취약하든, 대화가 있든 긴장이 있든”, ‘아낌없는 사랑’은 세계성공회 전체에 걸쳐 존재와 참여의 패턴이 다양한 맥락에서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sup>ii</sup>
- 2.4 어떤 맥락에서든 다른 종교를 믿는 우리 이웃은 모두 하느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부름 받았습니.

#### 3 확인

- 3.1 우리는 Lambeth Conference에 모인 세계 성공회 주교로서 그리스도처럼 충실하게 섬기며 서로 다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자세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2 교회는 유대교 이야기에 뿌리와 빛이 있습니다. 이는 유대교와의 만남에서 다른 종교와의 형성적이고 주요한 만남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가 공유하는 성서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기독교-유대교 관계의 부끄러운 역사와 관련하여, 교회에 신학, 예식 및 설교에서 반유대주의를 거부하고 극복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 3.3 우리는 ‘다섯 가지 주요 사명’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통전적인 의미의 그리스도 안의 하느님의 선교 내에서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치하게 하고, 각 상황과 관계가 이러한 ‘주요 사명’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 3.4 모든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 과제가 증가하는 세상에서, 공동선을 위해 다른 종교와 협력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넘어 하느님의 은혜로운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이것의 현대적인 예이며, 기후 변화라는 시급한 과제도 또 다른 예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 3.5 종교 간 그리고 종교 내 폭력이 일어나는 세계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이웃과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은 복음의 중심이 됩니다. 화평케 하는 일꾼이 되라는 부르심은 교회 안에서 다른 종교에 대한 편견과 증오를 조장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거부하고 도전하기로 결심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3.6 종교적 자유와 믿음에 대한 제한이 늘어나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는 세상에서, 세계성공회 공동체가(‘아낌없는 사랑’의 말을 빌려)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증거해야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의 연대와 지지를 보내는”<sup>iii</sup> 방법은 기쁨과 부활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의 일부라는 이해를 드높입니다.
- 3.7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신념을 움아매는 현상이 빈번해지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변경할 자유를 포함)를 수호하고 상호 옹호하기 위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협력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4 구체적 요청(청원)

우리는 다른 종교 전통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공동선을 위해 함께 힘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전 공동체는 이웃 종교와의 평화를 이루며 종교 간 관계로 인해 고군분투하는 기독교 형제자매들과 연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을 촉구합니다.

- 4.1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말과 행동과 겸허한 봉사를 통해 다른 종교적 전통의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 4.2 세계성공회의 주교들에게: 가능하다면 본인 지역에서 다른 종교의 지도자와 새로운 우정을 쌓아 평화 구축 및 공동선에 대한 성공회의 노력이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4.3 다른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기후 변화 등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고 빈곤을 완화하며 취약 계층을 돌보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협력 방법을 함께 모색해 주십시오.
- 4.4 성공회 종교간 위원회(Anglican Interfaith Commission)에게: 새로운 세대의 성공회 학자-실천자를 지원하는 관점에서, 성공회 성직자 및 평신도 중 종교 간 관계 전문가들이 연구자금을 후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는 다른 종교에 관한 신학적 배움의 유익이 더 넓은 의미의 세계성공회의 사명 안에서 확인되고 커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 4.5 세계성공회 주교 및 관구에게: 상황이 안전하고 가능한 경우, 적의와 박해에 직면한 성공회 공동체의 일부와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기도로 지원하며 우정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려는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 4.6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핍박의 고통을 받는 교회를 위해, 적의에 직면하고 다른 종교 이웃과 탄탄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온유하고 신실한 증인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 5 이행

종교간 위원회는 다음을 도모하고 장려합니다.

- 종교를 초월한 새로운 우정에 대한 부름의 결과를 이어 나갈 실질적인 방법(4.2)
- 다른 종교 전통과 협력하여 행동하라는 부름의 결과를 이어 나갈 실질적인 방법(4.3)
- 연구 장학금 프로그램 설립: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박사 학위 프로그램 및 거처 등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업무를 위원회에 위임하며, 현지 차원, 관구 차원, 세계성공회 차원의 배움 및 실천으로 이어짐(4.4)
- 종교 간 연결 방안 조정의 실용성: 연대할 수 있는 맥락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어떻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볍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 기존 교구 간의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 혹은 별도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 혹은 기존의 연결고리와 새로운 연결고리를 중복시킬 것인가? 등의 질문해 보기(4.5)

## 인용 자료

- i. *아낌없는 사랑: 복음의 진리와 대화로의 부르심, 종교 간 관계에 대한 성공회 신학*, Lambeth Conference 2008, 10페이지, [https://www.acommonword.com/wp-content/uploads/2018/05/Generous\\_Love.pdf](https://www.acommonword.com/wp-content/uploads/2018/05/Generous_Love.pdf) 에서 확인 가능
- ii. *아낌없는 사랑: 복음의 진리와 대화로의 부르심, 종교 간 관계에 대한 성공회 신학*, Lambeth Conference 2008, 8 페이지, [https://www.acommonword.com/wp-content/uploads/2018/05/Generous\\_Love.pdf](https://www.acommonword.com/wp-content/uploads/2018/05/Generous_Love.pdf) 에서 확인 가능
- iii. *아낌없는 사랑: 복음의 진리와 대화로의 부르심, 종교 간 관계에 대한 성공회 신학*, Lambeth Conference 2008, 10 페이지, [https://www.acommonword.com/wp-content/uploads/2018/05/Generous\\_Love.pdf](https://www.acommonword.com/wp-content/uploads/2018/05/Generous_Love.pdf) 에서 확인 가능



# LAMBETH CALL

## 화해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은 살아 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도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일 산 돌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사제가 되어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겨레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느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느님의 자비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분의 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 1 들어가기에 앞서

하느님의 화목케 하시는 사명은 오늘날 교회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느님의 구원하시는 자비와 은혜를 통한 화해를 갈망하고 약속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가난함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속되었고 이 화해를 실천하는 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일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니다.

### 2 선언

우리는 셋이면서 하나이시고 하나이자 셋이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느님 존재의 중심에는 특수성과 단일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안에서 하느님은 육신이 되심으로써 소외되고 분열된 인류에게 다가갑니다. 십자가의 궁극적인 화해에서 그리스도 안의 하느님은 화해에 수반되는 대가와 고통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하느님의 형상대로 독특한 방식과 서로 다른 맥락에서 형성되었으며, 하느님의 화해 사역의 언약적 동반자 관계로 초대받았습니다. 세계성공회 공동체에 구현된 우리의 다름은 다른 사람 안의 하느님을 경험하기 어렵게 하기도 하고, 그 경험에 깊이를 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힘으로 예수님을 통한 화해의 하느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온전해짐에 따라 우리의 다양성이 기념되고 우리는 분열에서 회복됩니다. 다양성이 넘치는 전체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형상을 더욱 온전하게 반영합니다.

### 3 확인

3.1 다름 속에서 맺는 관계는 거룩하면서도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서, 특히 2022년 Lambeth Conference 에서 초점을 맞췄던 베드로의 첫째 편지가 국가, 교회, 문화 또는 가정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에 의해 다른 인간에 대한 지배와 억압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 안에서 분열, 불일치, 갈등을 일으키는 시스템의 참여자입니다. 화해에는 정의와 책임, 그리고 사회와 교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억압과 분열이 계속되고, 역할에 관계없이 그러한 시스템에 갇힌 모든 이의 인간성이 감소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이의, 우리 각자 안의, 우리와 하느님의, 그리고 우리와 피조물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3.2 이 부름은 교회의 사역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느님께 다시 데려가는 지속적인 과정인 하느님의 화해의 사역을 재확인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때때로 권력 체계를 유지하고 정의와 온전함을 향한 노력을 방해하기 위해 화해에 대한 내러티브를 사용했음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이 사역이 다양한 상황에서 구체화됨에 따라 세계성공회 전체가 화해의 사역에 초점을 맞출 것을 추구합니다.<sup>i</sup> 우리가 함께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는 Lambeth Conference에서 강조된 화해의 습관을 실천합니다. 서로의 독특한 경험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합니다. 서로에게 존재감이 되어주고 주의 깊게 경청하며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해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우리가 처한 맥락을 다시 상상합니다.<sup>ii</sup>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화해를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 4 구체적 요청(청원)

- 4.1 전 세계 성공회 신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주변의 균열, 분열, 양극화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특별한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통해 쇠신하고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회개와 쇠신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하느님의 화해의 선물을 표현하는 세계성공회 공동체 전반의 다양한 전례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 4.2 우리는 주교로서 사용 가능한 화해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교구가 화해를 위한 공동체 차원의 실천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리라고 다짐합니다.<sup>iii</sup> 환경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부름’과 에큐메니즘에 대한 ‘부름’은 하느님의 피조물과의, 그리고 다른 교단과의 화해를 위한 공동체 차원의 헌신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 4.3 주교로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화해 사역에 대한 공헌을 축하하고 희망을 키워줌으로써 다음 세대를 격려하기로 다짐합니다. 젊은이들의 상처와 세대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대응하며 화해 이니셔티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 4.4 새로운 신학 교육 위원회와 세계 성공회 대학교 협의회 네트워크가 지원하는 세계성공회 내 성공회 신학교 및 훈련 프로그램들에 제안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적인 부분으로서 화해에 대한 훈련 및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역사적으로 힘이 약했던 세계성공회 지역의 신학자들의 말에 더욱 귀기울여 주십시오.
- 4.5 인종적, 문화적, 계급적 차별의 고통을 인정하고, 진실을 말하고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는 많은 성공회 교회의 노력에서 영감을 얻어, 각 관구가 자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역사적으로 그들이 처한 맥락과 교회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계속 소외되고 있는 이들의 경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도록 초대합니다.<sup>iv</sup> 그리고 우리는 각 성공회를 하나로 만드는 각 기구가 이와 유사한 자기 성찰과 경청 활동에 참여하기를 촉구합니다.
- 4.6 하느님의 화해의 중심은 정의와 책임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ACC에 요청합니다. 세계성공회 공동체 내에서 식민주의의 유산을 더 잘 이해하고 심문하기 위한 계획의 윤곽을 잡아 주십시오. 여기에는 제국주의적 가정에 기초한 선교 관행과 식민주의에 연루된 시스템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ACC를 통해 이미 수행된 작업을 기반으로 계획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 4.7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요청합니다. ACC 상임위원회와 함께<sup>v</sup>, 2022년 Lambeth Conference에 참석할 수 없었던 관구 및 교구의 형제자매들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쇠신하여 성공회 가족 교회로서 함께 더 충만한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4.8 캔터베리 대주교와 의장주교단과 ACC에 요청합니다. 평화 구축 대응 지원과, 격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관구에서 정의와 온전함을 위해 맞서 싸우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네트워크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 5 이행

- 5.1 각 관구에 요청합니다: 2025년 Primates' Meeting(의장주교 모임)까지 각 관구가 화해를 위해 선택한 자원을 활용하여, 경험이 담긴 이야기를 나누고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집단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주십시오.<sup>vi</sup>
- 5.2 신학 교육 위원회에 제안합니다: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신학교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ACC-19에서 보고해 주십시오.
- 5.3 성공회 기구에 요청합니다: 자기 성찰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각 관구로부터 질문과 간증을 받아 주십시오. 각 관구가 2025년까지 활동 제안에 응하기를 바랍니다.
- 5.4 ACC에 기대합니다: ACC-19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식민주의의 역사적 유산을 연구하고, 성공회 원주민 네트워크 등 식민주의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여전히 제국주의적 가정과 관행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 있는 선교 관행과, 식민주의에 계속해서 연루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 진행 상황과 계획을 보고해 주십시오.



- 5.5 캔터베리 대주교의 화해 부서에 제안합니다: 세계성공회기금(Anglican Communion Fund) 및 성공회 평화·정의 네트워크(APJN)와 협력하여,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관구의 평화 구축 대응을 개발하고 및 개별 평화구축자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의장주교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 5.6 캔터베리 대주교와 ACC 상임위원회에 요청합니다<sup>vii</sup>. Lambeth 2022 ACC-19에 참석하지 못한 관구 및 교구와의 새로운 대화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 5.7 세계성공회 청년 네트워크(ACYN)와 캔터베리 대주교의 화해 부서에 요청합니다. 화해 이니셔티브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할 아이디어를 가능한 한 빨리 제시하고 다음 ACC 총회에서 청년들이 진전시킨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 인용 자료

- i. 우리는 ‘화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맥락에서는 분열된 관계의 특정 영역을 나타내거나, 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치화되는 등 일부 상황에서 여러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또한 화해의 개념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다르게 표현된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예를 들어, 스와힐리어에는 ‘화해 (reconciliation)’라는 단어가 없지만 대신 함께 나아가기 위해 양측이 만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피지 (Fiji)에서는 용서를 선물로 바침으로써 화해를 표현합니다. 겸허하게 용서를 수용하면 화해와 포용이 이루어집니다. 콩고에서는 화해를 ‘공유 상속’을 의미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 ii. 이러한 습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ambeth Conference를 준비하는 주교들에게 제공되는 ‘분쟁 세계에서 의 사역’ 과정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lambethconference.org/programme/ministry-in-a-conflicted-world/the-course/>
- iii. 화해에 사용되는 자원에는 성공회 관구 또는 성공회 네트워크(예: 성공회 원주민 네트워크 또는 성공회 평화·정의 네트워크), 캔터베리 대주교 화해부의 차이(Difference) 코스 및 그의 저서 ‘화해의 힘(The Power of Reconciliation)’이 추천하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iv. 캐나다 성공회,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폴리네시아 성공회, 그리고 최근 미국 성공회의 인종차별과 백인 우월주의 관련 연구를 예시로 참조하십시오.
- v. 상임위원회는 ACC 총회 사이 기간에 ACC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담당합니다.
- vi. 화해에 사용되는 자원에는 성공회 관구 또는 성공회 네트워크(예: 성공회 원주민 네트워크 또는 성공회 평화·정의 네트워크), 캔터베리 대주교 화해부의 차이(Difference) 코스 및 그의 저서 ‘화해의 힘(The Power of Reconciliation)’이 추천하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vii. 상임위원회는 ACC 총회 사이 기간에 ACC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담당합니다.

LAMBETH  
CONFERENCE



웹사이트: [www.lambethconference.org](http://www.lambethconference.org)  
이메일: [info@lambethconference.org](mailto:info@lambethconference.org)

**필로우하여 소식을 확인하세요.**

**f** [www.facebook.com/LambethConference](https://www.facebook.com/LambethConference)

**t** [www.twitter.com/LambethConf](https://www.twitter.com/LambethConf)

**#LambethConf**

Lambeth Conference 여정 중 세 번째 단계의 일환으로 2023년 5월에 발표되었습니다